CD 고시금리 뭔가 이상하다

〈양도성예금증서〉

거래 없는데도 매일 0.01%P↑…대출자 부담

증권사 직원 10명이 결정…일각선 담합 의혹

거래가 없는데도 양도성예금증서(CD)의 고시금리가 매일 0.01%포인트씩 오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결정과정이 주먹구구식이고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CD금리는 가계대출의 60%, 중소기업대출의 40%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는 등 400조원 대출의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11일 금융권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현재 3개월물 CD 고시금리는 2.91%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 2월11일 이후 거의 8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특히 CD는 거의 거래되지 않고 있는데도 고시금리는 지난달 28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0.01%포인트씩 9영업일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고시금리가 매일 0.01%포인트씩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D 거래실적 상위 증권사 10곳을 정해 3개월물 고시금리를 협회에 보내오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중 가장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제외한 8개 수치의 평균치를 고시하는 등 나름대로 객관성과 합리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해당 증권사마다 CD금리 입력책임자를 정해두고 있는데, 정 책임자는 부서장급이며 부 책임자는 대체로 과장급"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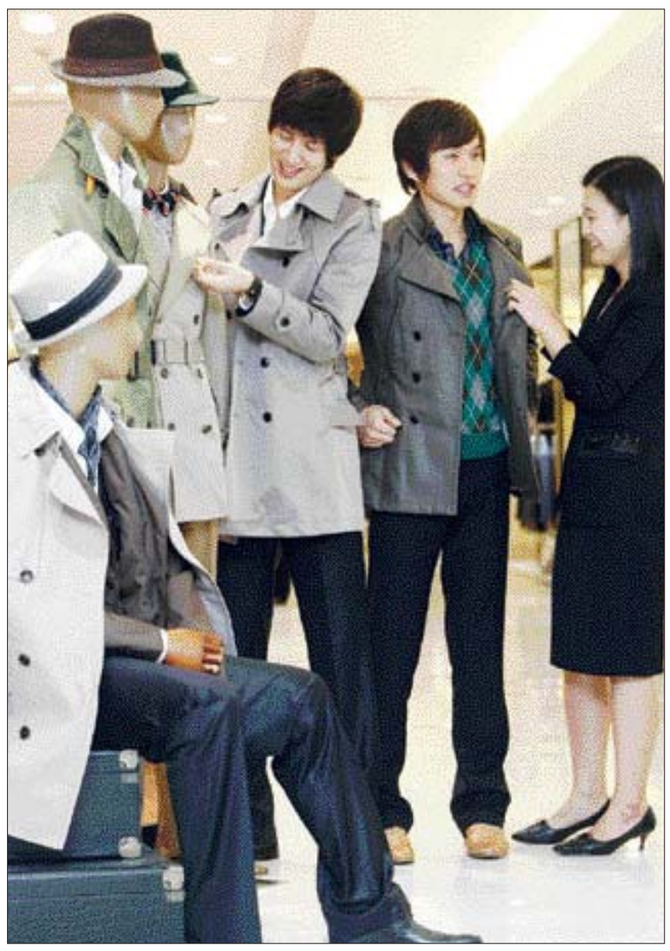
그러나 증권사들은 ▲CD거래가 없는데도 시장분위기 등을 감안해 CD 지표금리를 추정하고 있으며 ▲CD거래를 거의 하지 않는 최하위 직원이 고시금리를 정해 금투협에 보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금투협에 통보하기 전에 다른 증권사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고시금리는 자신들이 보낸 것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증권의 CD담당 직원은 "우리 증권사에서는 나 혼자 CD금리를 결정해 금투협에 보낸다"고 말하고 "CD입력은 번거로운 일이어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원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B증권사의 담당 직원은 "고시금리를 금투협에 보내기 전에 다른 증권사 2~3곳에 물어보는데, 다들 보합이라고 해서 보합으로 보냈는데도 고시되는 것은 이상하게도 0.01%포인트 오르곤 했다"면서 "그래서 고시금리는 금투협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 CD금리에다 추가하는 각종 가산금리가 치솟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올해 8월 기준 2.97%로 2007년 평균 1.18%의 2.5배로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최고 6.32%포인트에 달하면서 조달금리인 CD금리의 배를 웃돌고 있다. 가산금리가 치솟는 것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수개월째 동결되자 신규 대출자에게 각종 명목의 가산금리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올 가을엔 트렌치코트 11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가을 남성의 상징 트렌치코트를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유행 패션 아이템인 트렌치코트를 제안, 10~20% 할인 판매한다. /연합뉴스

광주 미분양 아파트 10개월째 감소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감소세가 10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지난 9월말 기준 광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총 6천102가구로, 전달(6천799가구)보다 697가구(10.3%)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만3천277가구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이 10개월 사이 53%가 감소한 것이다.

수완지구 입주가 잇따르면서 광산구가 629가구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서구 1천159가구, 남구 967가구, 북구 828가구, 동구 6가구 순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의 입주가 꾸준하게 이어진데다, 주택 구매심리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현대건설 상무 힐스테이트 계약자 초청 설명회

현대건설은 최근 광주 상무 힐스테이트 계약자들을 초청, 현장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남아있던 '공사 현장은 보여주지 않는다'는 관행을 깬 것으로, 입주 예정자들에게 공사 추진 현황 및 아파트내 차별화된 편의시스템 등을 소개하자는 취지로 업계 최초로 시도했다는 게 현대건설측 설명이다.

현대건설이 광주시 서구 쌍촌동 건설중인 상무힐스테이트는 모두 336세대로, 이날 행사에는 계약자 가족 등 760여명이 참여했다.

상무힐스테이트측은 "입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공간을 위한 설계 및 편의 시스템이 적용된데다, 입지여건, 생활문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상무힐스테이트는 내년 2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진행중이며 일부 잔여 세대에 대한 분양도 실시하고 있다. (062-225-311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美 기업 실적발표 시선 집중

투자 심리 개선에 반등 기대

지난주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금주에도 경제지표와 더불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주목이 높아질 전망이다. IT업계를 대변하는 인텔과 IBM의 실적발표가 각각 13일과 15일(현지시각)에 예정돼 있고,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 메릴린치 등 대형 금융기관들의 실적발표도 다음주에 집중돼 있다. 전반적으로 미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주 미국증시의 흐름은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국내 증시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금리인상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적어도 연내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투자심리 측면에서 독자적인 금리인상 부담의 해소가 모멘텀을 제공했다면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의 차익실현이 마무리된 점이 보다 직접적인 상승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 이후 27조원의 순매수로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단독으로 견인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최근 2주일 동안 1.1조원 가량의 차익매물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난주 후반을 기점으로 차익실현 움직임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주 버냉키 의장의 통화긴축 준비 발언은 다분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의 과도한 속도에 대한 경계성 발언으로 해석되는 만큼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 결국 글로벌 저금리 국면의 연장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서의 외국인 유동성의 전반적인 매수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최근의 단기조정 이후 기존 추세로의 복귀를 겨냥하는 반등세에 무게를 둘 수 있겠다. 기존 주도주들의 경우 그간의 높은 상승폭으로 인해 단기 낙폭이 깊었지만 시장이 안정세를 되찾음에 따라 저가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국내경기 회복세를 바탕으로 시장 내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내수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은행주에 이어서 보험주의 탄력이 높아지고 있고, 유통이나 건설 등도 금리동결을 계기로 새로이 조명을 받는 모습이다. 내수주의 경우 상승속도가 기존 수출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급등락의 변동성 리스크가 낮다는 점은 메리트가 될 수 있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